

| | | | |
|-------|------------------------|-------|------------------------|
| 보도 일시 | 2022. 12. 21.(수) 12:00 | 배포 일시 | 2022. 12. 21.(수) 12:00 |
| 담당 부서 |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 | 책임자 | 과 장 김충기 (064-727-0364) |
| | | 담당자 | 전문관 한경훈 (064-727-0364) |

22~24일 매우 많은 눈, 강추위, 강풍·풍랑

- (대설) 산지와 해안 대설특보 가능성, 중산간 30cm 이상, 산지 50cm 이상 많은 눈
- (강추위) 평년보다 2~7도 낮은 기온, 강한 바람에 체감온도 더욱 낮아져
- (유의사항) 도로 빙판길, 항공편·여객선 결항, 강풍·풍랑 안전사고 각별히 주의



[12월 22일(목)~24일(토) 예상 기압계 모식도]

- 제주지방기상청(청장 전재목)은 북쪽에서 남하하는 고도 5km에 위치한 차가운 공기(영하 45℃의) 영향으로, 22일(목)부터 24일(토)까지 제주도에 찬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제주도에는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많은 눈과 강추위, 강한 바람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기를 당부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기상전망을 발표하였다.

[대설과 추위 전망]

- (대설) 22일(목)부터 24일(토)까지 북쪽에서 남하하는 고도 5km에 위치한 차가운 공기(영하 45℃)가 한반도 부근으로 유입되면서, 서해상의 해수면 온도와 기온의 차이(해기차)에 의한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였다.
- 현재(21일(수)) 내리고 있는 제주도산지의 눈은 오후부터 밤 사이 약해졌다가 22일(목) 새벽부터 다시 강해지기 시작하여, 22일(목) 새벽부터 아침 사이 산지에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고, 22일(목) 오후부터 중산간, 밤에는 해안지역에도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으며, 특히 22일(목) 밤부터 23일(금) 오전 사이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 곳에 따라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고 밝혔다.
- 또한, 23일(금) 밤부터 24일(토) 오전 사이 다시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면서, 장기간 적설이 이어짐에 따라 지역별·고도별 적설량의 차이가 크겠고, 산지를 중심으로 성탄절인 25일(일) 새벽까지 눈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많은 눈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를 강조하였다.

< 예상 적설(12월 22일~24일) >

- 제주도산지(고도 600m 이상): 20~30cm, 많은 곳 50cm 이상
- 제주도중산간(고도 200~600m): 10~25cm, 많은 곳 30cm 이상
- 제주도해안: 5~15cm(남부, 동부 중심)

○ (빙판길 주의) 22일(목)부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중산간 이상의 도로 (516도로, 1100도로, 평화로, 침단로, 번영로 등)에는 22일(목) 낮부터 25일(일) 오전 사이 빙판길이 될 가능성이 높겠으니, 차량 운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량 월동장비를 갖추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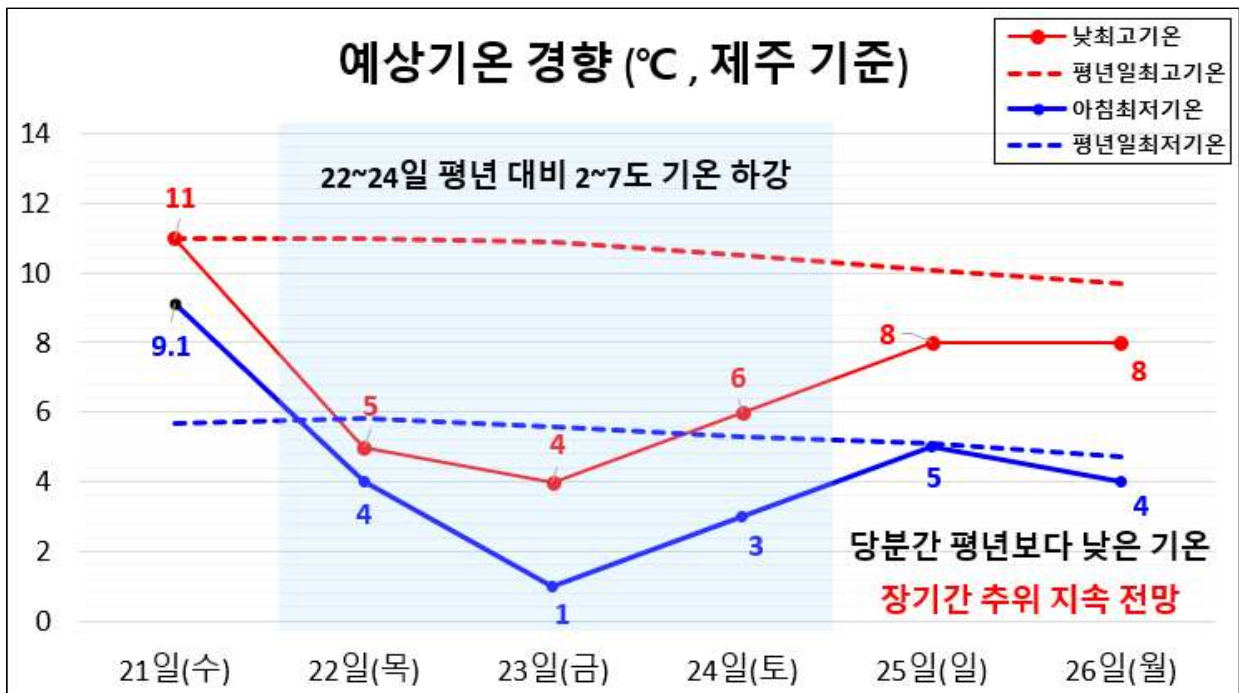
- 또한, 일부 해안지역에도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도로나 통행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고,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한라산 등반로에도 빙판길이 예상되는 만큼 교통안전과 등산객 및 보행자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 (주의사항) 24일(토)까지 많은 눈이 내리면서 비닐하우스 붕괴와 같은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 장기간 이어지는 많은 눈과 강한 바람으로 항공편, 여객선의 결항·지연 가능성이 있겠으니,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변동성) 찬 공기가 유입되는 시점과 강도, 지속기간에 따라 예상되는 적설과 강수량에 대한 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의 예보와 기상정보를 참고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기온)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점차 낮아져, 22일(목)부터 24일(토)까지 평년(일최저기온 5℃ 내외, 일최고기온 10~11℃)보다 2~7℃가량 낮은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특히 매우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더욱 낮은 가운데, 24일(토) 이후에도 평년보다 1~2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추위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분석하였다.

○ 당분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지속되는 만큼, 급격한 기온변화에 대한 노약자와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와 함께, 농작물의 냉해 피해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도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12월 21일(수)~26일(월)까지 제주 예상기온 경향 1

[강풍 및 풍랑 전망]

- (강풍) 22일(목)부터 제주도에는 바람이 35~60km/h(10~16m/s), 순간풍속이 70km/h(20m/s)(산지 90km/h(25m/s) 이상)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제주도에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고, 24일(토)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 (풍랑) 21일(수) 오후부터 제주도남쪽먼바다에는 바람이 35~60km/h(10~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2.0~4.0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고, 21일(수) 밤부터 남해서부서쪽 먼바다와 제주도앞바다에도 물결이 높아지면서, 풍랑특보가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전망하였다.
 - 특히, 22일(목) 오후부터 점차 물결이 3.0~5.0m 이상으로 더욱 높아지면서 제주도전해상과 남해서부서쪽먼바다의 풍랑특보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겠고, 25일(일) 밤부터 26일(월) 오전까지 장기간 풍랑 특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고 전망하였다.

- (유의사항) 24일(토)까지 강한 바람에 의한 안전사고 및 비닐하우스, 간판과 같은 야외 시설물에 대한 점검 관리와, 높은 파고에 의한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고, 장기간 이어지는 풍랑의 강도와 시기에 변동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반드시 참고해줄 것을 강조하였다.